

협회 소식

1. 호스피스 국제 학회 참석

본 협회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9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열린 제 2회 International Hospice Institute & College 연례모임과 제5회 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의 Congress에 주경수 지도 신부, 노유자 회장, 홍영선 부회장, 메리트레이시 수녀, 김정선 수녀, 배현정 선생이 참석하였다.



학회 참석후 노유자 회장과 김정선 수녀는 Marie Curie Cancer Centre를 포함하여 8개 Hospice 시설을 견학하였고, 주경수 지도 신부와 홍영선 부회장은 St. Oswald's Hospice Marie Curie Centre를 각각 1주씩 방문하였다.

2. 확대위원 및 교구대표자 워크샵

10월 4일 성모병원 마리아관 8층 회의실에서 확대위원 및 교구대표자 30명이 모여 한국 호스피스 표준에 관한 워크샵이 있었다. 오전에는 "외국과 한국 호스피스 비교"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고 오후에는 3조로



나누어 조직과 역할, 시설 및 규모, 교육 등에 관한 한국형 호스피스의 표준에 대하여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3. 호스피스 협회 기금 마련

본 협회는 지난 9, 10월에 기금마련을 위한 새우젓 판매를 각 기관 별로 분배하여 5드럼을 판매했다. 판매에 협조해 주신 여러기관 회원들께 감사를 드렸다.

모현 호스피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녀 세명이 full time으로 일하는 가정 호스피스 기관입니다.

의사 메리수녀, 간호사 권오숙 수녀(6월부터 모현 책임자), 상담심리 최귀순 수녀 그리고 7,8년간 함께 어우러져 팀이 된 자원봉사자 10분이 가족입니다.

10월에는 봉사자와 단풍이 한창

인 강릉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지요. 더불어서 새로 단장한 갈바리 의원의 호스피스 병동도 견학했습니다.

호스피스 모현 모임

7,8월에는 안락사에 대한 연구와 토의가 있었고, 10월에는 영국 런던 호스피스 학회에 참가하신

분들과 나눔이 있습니다.

현황

9월에 신환자는 7명, 대학병원과 보건소, 봉사자와 유가족들의 소개로 만났지요. 그중 5명이 말기 암환자, 2명은 AIDS환자이며, 지역 구분없이 가게 됩니다. 방문 횟수는 사별관리 포함해서 74회

(22명의 환자) 임종하신 분은 3명 그리고 전화 상담 14회(이 통계는 호주의 'KARUNA'와 비슷합니다. 참고하세요) 월례 미사에는 유가족 들과 봉사자, 후원자(30)를 모시고 전종훈 신부님의

집전으로 드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임종자를 위한 성체조배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10년간 임종하신 분들의 명단이 일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센타(이름은 예정)

모현 10년의 역사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창립자 메리포터 수녀님의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메리놀 병원 호스피스

호스피스 활동참여 보도

부산 일간지 국제신문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병원 호스피스 봉사자와 어머니, 그의 자녀들이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체험에 대한 소감을 기사로 보도하여 호스피스 봉사활동 홍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날 자녀들은 어머니들의 병원 봉사활동을 실제로 경험하는 가운데 산 경험을 얻었으며 그들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간호가 뜻 깊은 교육이 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김루시아 씨의 장례봉사 활동을 소개하여 편안한 죽음을 돕는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부산 시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어 호스피스 간 호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호스피스 팀 교육

지난 9월 22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죽음의 5단계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술』을 교육하였다. 강의와 그룹토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6월에 시작한 신 봉사자와 기존 봉사자들이 환자들과의 의사 소통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돕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봉사자들은 교육후 환자들을 대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호스피스 봉사자 시상식

지난 9월 25일 본 병원 자원봉사자 학교 개강식에서는 개강미사 본 병원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일해온 노고에 감사하기 위하여 6년여 동안 열심히 일한 제 1기생 4명과 14년 동안 봉사해 온

병원 일반 봉사자 2명에게 기념패와 기념반지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으며 다과회와 식사시간도 마련하여 그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시상후 봉사자들은 뜻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환자들에게 더욱 좋은 봉사를 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다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알려드립니다.

성바오로 병원 호스피스과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rochure에 전화번호 정정 바랍니다.)

호스피스 과 02) 958-2438

호스피스 병동 02) 958-2437